



제 6 편 종교 宗教

제5장 기독교 基督教

1. 장수교회



장수교회는 '87년 1월 23일 첫 예배를 들었으며 오랜 역사를 가졌다. 미국의 남장로교 마로덕 선교사가 포교하였는데 당시에 장수리 2구 이영호씨 댁에서 불과 교인 10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였다. 당시의 사정은 포교활동이나 종교생활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첫째 우리사회가 오랜 유교의 교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둘째 일본이 한국침략을 계획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압박하였고, 첫째 일본의 침략행위가 서구라파나 미주의 자유세계에 알려 질까봐 일본인들은 외래의 선교사들과 우리 종교인들의 만남을 사실상 꺼려하여 갖은 박해를 다하였다. 이상 문제들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종교 활동마저 구속을 당하였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은 결코 아니라 첫 예배를 들인지 4년 후인 1915년 6월 10일에 예배당 20평을 건립하였다. 첫 예배당이 건립되었던 곳은 현 장수읍 2구 도서관 자리였다. 그리고 김진영씨를 초대 전도사로 성직을 행하였다.

교인들에 믿음의 힘은 일제의 탄압에도 아랑곳없이 교인은 늘어나고 교세는 점점 확대되어 갔다. 일제는 점점 확대 되어가는 교회를 못 마땅히 여기고 갖은 학대를 하였고 드디어 1935년 9월 11일에는 예배당을 빼앗는 강도 행위를 하였다. 예배당을 빼앗긴 교인들은 악전 고투끝에 현 예배당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 예배당 자리는 그 당시 장수 청년회관 이었다. 기독교가 우리민족에 봉사한 일은 현대문명을 입수하여 온데도 그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나 더 큰 공로는 악독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약탈 살인 방화등을 서슴지 않을 때 그들의 악행을 자유세계에 알리는 역할이다.

제 잘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는 하나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여 온갖 수탈을 다하며 외계에 한국민족이 원하여서 합방하였다는 구실을 붙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과 더불어 교회활동도 활발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공산당 난리는 또 한번 자유스러운 교회에 살인 방화의 비극을 맞이하였다. 일제에 탄압을 당하였고, 공산당에게 짓밟힌 교인들은 그럴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하여 자체를 수습함은 물론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교인이 늘어나고, 교세가 확대되는데 비해 예배당은 일제 초기에 건축한 청년회관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불편하고 협소하였다.

1964년 10월 15일에 김제만 목사가 부임하였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집사, 권사 일반교인에 이르기까지 각기 부여된 소임을 다하여 현 교회당을 신축하였는데 1976년 4월 21일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예배당의 규모는 3층 양옥이다. 1층이 110평, 2층이 110평, 3층이 20평 등과 부대시설 등을 합하면 310평의 대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건축비는 2,400백만원이며 골재 재료는 350여명의 교인들이 총동원되어 대야 등으로 골재를 운반하는데 밤낮 없이 역사를 하였다.

주위사람들은 이 역사를 개미역사라 하였는데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인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일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들은 육

체의 힘보다 정신의 힘이 얼마나 큰 기를 깨달았다고 할 만큼 대단한 역사였다. 이 예배당이 신축되고 봉헌식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목사 집사 등 성직자들이 5백명이 모여 들었으며 이 때 장수를 처음 온 목사도 있었다.

종교의 힘이란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화하는 것이다.

상기 교회는 많은 교인을 포교하여 교인의 연고지에 교회당을 신설하고 더 많은 교인을 포교하였다. 가정의 안정과 사회에 봉사한바 추후에도 이 지역 사회에서 선구적 봉사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의 교인수를 보면 유아부 초등부 합하여 200명 중등부 고등부 합해 150명 장년부가 400명 합이 750명의 대 교인을 갖춘 교회이다.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많은 봉사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

2. 장수 제일교회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4번지에 있으며 교회는 1984년에 설립되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 교회의 시작을 보면 처음에 너무도 초라한 느낌을 준다. 백영귀씨외 9명이 첫 예배를 보았다 하는데 이 얼마나 적은 식구였는가.

그러나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적은데서, 가까운 데로 시작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 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이 교회도 현재는 미미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정립 되면 보다 훌륭한 교회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여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다.

현재의 교직자는 변이주 목사이며 첫 예배는 김성권목사를 교직자로 하였다. 대지는 150평 정도이며 교회당은 철근 조립식 건물 50평이 있다. 현재의 교인 수는 약 100명이다.

3. 노곡교회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176번지에 있다. 당 교회는 1985년 10월 17일에 창설되었다.

현재의 교역자는 이종문목사이며 교지의 총면적은 90평이다. 교당은 25평이고, 목사 사택이 15평이다. 총 교인 수는 75명이며 신설교회로서 교세가 지극히 미약한 듯 하나 사실상 종교의 의의는 교세가 큰데 있는 것이 아

니며 지도하는 목사의 참신한 정신과 따르는 교인들의 순수한 정신에 있다고 보면 오히려 교세가 강한 기업적인 교회보다 더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연륜의 흐름에 따라서 교세가 번창하리라 본다.

4. 구락교회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583-1 번지에 있다.

1961년 창립했으며, 대지 229평, 건물 25평, 신도 남 10명, 여 35명이다. 영세한 교회이며 단일 마을로서 교세가 확대될 수 있는 위치가 못되어 창설 년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였으나 그런대로 깨끗한 환경에 복음사업과 전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신앙자의 신앙이 아니면 교회 운영 그 자체가 문제되리라 생각되나 교직자의 신앙심으로 운영 된다.

5. 대성교회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866-1번지에 있으며 1969년에 창설, 대지 423평, 건물 70평, 신도 남 30명, 여 45명이다.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교인도 도시로 이주하는데 큰 원인이 된다.

이 교회도 역시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신앙심이 아니면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6. 성은교회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561-1번지에 있으며, 1985년에 창설했고, 대지 89평, 건물 37평(부속건물) 신도 남 5명, 여 10명이다. 교인 15명의 단출한 교회다. 교회가 이 지역 중심부가 되서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보인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디보다 자신이 있어 보인다. 교인 확대를 위한 전도사업 또한 대단하여 많은 교인이 와서 교화될 것이다.

7. 오동교회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1242-2번지에 있으며, 대지 89평, 건물 20평(부속건물 15평), 연혁 86년에 동화교 선교활동으로 창설했다. 신도는 남 2명, 여 13명이다. 너무도 영세한 교회다. 조용하며 자연이 맑음으로 수양지나 요양지로서는 빼어난 곳이다. 공부하기에도 이상적인 곳이며 신앙심으로 번

창하길 바란다.

8. 새예루살렘교회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157번지에 있다. 1986년에 창설했으며, 대지 150평, 건물 20평(부속건물 15평) 신도 남 6명, 여 14명이다.

너무도 영세하여 보기에다 딱해 보이나 교직자의 자신찬 포교활동이나 복음 전도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신앙심은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한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니, 교회의 활동은 그런대로 빛나고 있다.

9. 산서교회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45-2번지에 있다. 산서교회는 1953년 5월 1일에 전북여전도회에서 장은자 전도사가 파송 창설하였다.

창설 이래 하나님의 참 뜻을 이 지역에 전함은 물론 이 지역에 많은 봉사와 노력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었다. 먼 후일에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현재 교회를 운영하는 성직자는 조성봉 목사이며 근면하고 성실한 목사님의 성의 있는 설교로 많은 사

람들이 교화될 것이다. 동교회는 성전건평 54평 목사 사택 24평과 부속건물이 있다. 현재의 교인 수는 330명의 대식구이며 주일예배가 성왕리에 이루어진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만큼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처럼 물질에 현혹된 현실 속에 더욱 종교적 교화가 진정 필요한 때이다.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의 견해는 더욱 절실하게 요망된다.

10. 산서 제일교회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01-1번지에 있다. 1970년 9월 23일 이기영을 주축으로 하여 인근의 청년 유식자들은 불 취학 아동교육을 목적으로 많은 불 취학 아동을 교육시켜 사회에 배출하였다. 이기영씨의 사회성은 불취학 아동 교육차원을 넘어 성도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기영씨와 지역의 뜻있는 청년유지들의 진정한 뜻은 메마른 대지위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나 성숙되어 갔다. 성자의 마음은 썩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1984년 11월 18일 정식으로 성직자가 부임하고 교회로서 선교를 행하게 되었다. 1988년 4월에 건물을 현주소로 건립하고 교회를 이전하였다. 현재는 산서 중앙에 위치하여 산서면의 복음사업과 다른 공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필자는 1970년 당시 상기 공민학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학교의 도움을 얻으려 이기영씨와 더불어 상의한적 수 십회 있으나 힘이 되어주지는 못 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젊은이들은 씨를 심고 싹을 키워서 오늘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현재 성직자 정기원목사, 교회의 대지 235평, 교회당 건평 75평, 사택 25평, 부속건물 약간이 있다. 시작 당초가 건실하였기 때문에 크게 번창할 것이다.

11. 오산리 크리스도교회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469-1번지에 있다. 1974년 9월 6일 설립했으며, 성직자는 권문주(權文周)목사이다. 교당 건평 50평 그밖에 부속건물이 있으

며 교세를 보면 지극히 영세한 듯 하나 문제는 교세의 대소에서 종교 가치를 찾을 수 없다. 한 성직자가 한사람을 교화하였다고 한들 그 뜻에 어긋났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현대사회가 갈망하고 요구하는 종교상은 양적으로 볼 수는 더욱 없고 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라고 생각된다. 여하간 물질화 되어가는 인간세상을 인간화 시키는데 종교는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현재의 신도수는 1백명 정도이다.

12. 평촌교회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평촌마을 64 번지에 있다. 동 교회는(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촌교회다. 1987년 3월 3일 산서면 동화리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 조성봉목사가 분립 창설하였다. 현재 교회를 운영한 성직자는 문영학 전도사이다. 교회성전 30평의 건물과 부속건물이 있고, 현재의 교도수는 70명이다.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1개 마을에서 70명의 교도 입교하는 일이며 70명의 교도가 1개교당을 운영하는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주민의 안정한 삶의 뿌리가 되기를 기원할 뿐이다.

13. 충성교회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927-1번지에 있으며, 대지 150평, 건물 50평(부속건물 일부), 신도 남 15명, 여 55명이다. 산간부 교회로서 상당수 교세를 가졌고 교인 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마을의 친목도 잘되며 성직자의 일거일동이 후덕하고 전도사업도 착실하다. 마을의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며 교회의 지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가 자기이며 그 다음이 가족이며 사회며 나라라 할 것인데 교직자들의 생활은 사실상 모범자가 많다. 이상의 교회 교직자도 동일한 교직자중의 일인이다. 크게 발전할 소지가 가득하다

14. 영광교회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297 번지에 있으며, 대지 70평, 건물 65평, 신도 남 6명, 여 14 명으로 영세한 교회다. 연혁이 일천한 까닭도 있겠으나 주민의 인식도 문제가 된다. 교세가 영세해도 교직자는 배치되었고, 교직자의 최저 생활은 보장되어야 할텐데 농촌의 이농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니 애처로운 일이다. 교회의 운영비 관리비는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궁금할 뿐이다.

15. 변암교회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1121-3번지에 있으며, 대지 150평, 건물 63평, 신도 남18명, 여 72명이다. 변암면 소재지에 위치하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성직자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교세가 확장될 수 있는 위치다. 교당도 신설 되고,부지도 확장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위력이 대단하다. 크게 발전을 기원한다.

16. 상동교회

장수군 변암면 동화리 31번지에 있으며, 대지 50평, 건물 20평, 신도 남 3명, 여 9명이다.

12명의 교인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영세한 교회다. 교직자의 피나는 노력도 가히 인정할만한 교회이다. 크게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7. 광대동 새 사도교회

장수군 변암면 지지리 716번지에 있으며 건물 24평, 대지 180평, 신도 남 17명, 여 23명이다.

지지리 하면 하늘 아래 첫동리라는 별호가 있다. 위에는 푸른 하늘, 아래에는 맑은 물, 양옆에는 푸른 산이 있을 뿐 고요한 곳이다. 자연이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인적이 희소하여 추후에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신앙지 겸 수양지로 찾을 가능성이 커 발전의 여지는 있다. 사철의 자연경관은 뛰어난 곳이다.

18. 사암교회

장수군 변암면 사암리 369번지에 있으며, 건물 31평(부속건물 33평), 대지 120평, 신도 남 3명, 여 7명이다. 대단히 영세한 교회다. 방화동 국민휴양지 개발로 발전의 좋은 여건은 있다. 교회의 창설도 아주 알찬 교회다.

19. 국포교회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346-1번지에 있으며 대지 180평, 건물 27평, 신도 남 30명, 여 70명이다.

교세는 그렇게 영세한 교회라 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교회다. 산간 오지면서도 방화동 국민 휴양지가 준공되어 외래객이 자연 증가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이상과 같이 한적한 곳에 교회를 창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직자들의 노고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20. 장계교회



장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 교회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5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회는 대지면적 480평에 교육관 1층이 106평 2층 3층 합해 363평의 건물과 종탑까지의 높이는 7층이다. 목사 사택을 비롯하여 창고등 부속건물이 있다. 교인수는 총 864명이며 중·고등부, 대학부 220명, 유아부가 390명, 청장년부가 27명, 노·장년부가

227명의 큰 세를 가진 교회이다.

현재는 유제창 목사이며 이 교회는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며 서서 활동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능동적인 교회다. 목회 활동계획을 보면 1. 전도하는 교회 2. 훈련하는 교회 3. 봉사하는 교회 4. 파

송하는 교회 5. 후일을 준비하는 교회 등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후일의 준비는 교육관 확대 부활동산 조성, 묘지와 수양과정을 목표로 하고 성실이 하나하나 닦아가고 있다.

동교회의 역사는 1927년에 장계면 무농리에서 전기봉 전도사가 김운섬, 서문서씨가 중심이 되어 무농리에서 설립하였다. 1935년 3월 6일 김종대 목사가 순회 목회를 지도, 1936년에 전재섭 전도사가 장계면 장계리 서동에 다 10 평의 교회를 신축 입당하였고, 1943년에 일제는 교회 종을 약탈하여 갔으며 1951년 8월 3일 공산당 남침 시 비행기 폭격으로 전소, 1951년 8월 23일 장계면 신동의 민가를 임대교회로 사용 1951년 11월 3일에 신동 218-3번지 민가로 예배당을 이전하였다.

1952년 4월 8일 육군 5사단 박태정 군목사의 도움으로 예배당과 종탑 입당 1952년 10월 1일에 조치원 전도사가 교회 예배당 신축준비를 하여 교회청사를 현위치로 옮기고 35평을 신축하여 완공했다.

1974년 1월 1일 이봉춘 목사가 목사로 부임, 1980년 4월 12일에 현재의 예배당 기공 1981년 11월 27일 현 예배당 신축 준공, 1986년 유제창 목사가 부임하였다. 유제창 목사를 비롯하여 교직자들과 교인들은 정성껏 성금을 마련하여 소년소녀 가장들을 비롯해 노약자들을 위해 성심껏 기도를 드리고, 라면 등 식량을 준비하여 외롭고, 어려움을 같이 하여 사회의 칭송은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다.

물질의 풍성에 대하여 인정이 메마른 오늘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교회는 5년여간 너무 많은 일을 하였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큰일을 할 것 이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1. 대곡교회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625-2번지에 있으며 1987년 9월 2일 창설했다. 대지 140평, 건물 32평(부속건물 25평) 신도 남 5명, 여 20명이다. 대단히 영세한 교회다.

교회의 위치도 산간 오지이며 이농현상이 극심한 까닭에 교세 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성직자들의 복음사업 전도사업은 영세 할수록 활동은 극대화 되어 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22. 명덕교회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492번지에 있으며 1964년 3월 15일 창설했다. 대지 571평, 건물 50평 부속건물 2평, 신도 남 15명, 여 90명이다. 교세도 상당수준이며 교회의 위치도 좋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음전파와 전도사업에 열중하고 있으나, 동교회도 전도사업을 열심히 하여 신도수가 날마다 느는 형세이다. 많은 발전의 전망이 보이는 교회다.

23. 재은교회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64-3번지에 있으며, 1988년 9월 10일 창설했다. 대지 80평, 건물 32평, 부속건물 4평, 신도 남 20명, 여 80명이다.

일천한 연혁인 까닭에 현재의 교세는 약하나 장계 시내 중심지여서 앞으로 발전의 소지는 대단히 좋은 곳이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답게 복음과 전도사업을 펴고 있으며, 이 교회도 주야 쉬지 않고 전도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좋은 교회다. 크게 번창할 여지가 있다.

24. 중앙교회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64-3번지에 있으며, 1988년 6월 5일 창설했다. 건물 19평, 대지 80평, 신도 남 25명, 여 45명이다. 창립 년월일이 일천한 관계로 현재의 교세는 약하지만 위치상으로 보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 어느 교회를 보아도 성실한 복음 활동이나 전도사업 등은 눈부시게 하고 있으며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다.

25. 천천교회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175번지에 있다. 1953년 10월에 창립하였다. 현재 교회운영과 하나님의 복음은 이평준 목사가 전한다.

교회의 대지 면적은 195평이며 성전 1동과 사택 1동 그리고 부속건물이 있다. 교도수는 장년부 62명, 중고등부 42명, 유년부가 72명이다.

26. 월곡교회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523-4번지에 있다. 1971년 창설했으며 대지 145평, 건물 예배당 44평, (부속건물 일부) 신도 남 13명, 여 17명이다.

지극히 영세한 교회이며 신도가 남·여 합하여 30명의 교회이나 조용하고 한적한 산촌의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도시의 번창한 교회보다 오히려 진실한 면이 있다.

교인은 물론 어떤 사람이라도 보면 서로 반겨주고 서로 아끼며 서로 가르쳐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물질과 교리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에는 이런 영세한 교회에서 더 착실히 사업을 하는 까닭에 더욱 건전해 보인다. 아무튼 교인 지도 역시 의·식·주 문제 해결 때문에 영세교회의 교직자를 보노라면 고생하는 것이 애처로울 뿐이다.

27. 연평교회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1964년에 안재전 전도사가 설립하였으며 대지 는 5백평이며 예배당은 16평이다. 사택 18평 있으며 교인은 30명에 유아부 교인 25명, 중고등부 교인 25명이다. 교구는 연평리 신전마을, 구상마을, 오봉리 신흥마을이다.

28. 월곡 통일교회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521-3번지에 있으며 1962년 설립하였다. 대지 103평, 건물 25평, (부속건물 일부) 신도 남 11명, 여 15명이다.

통일교회의 전도와 운영 방법은 대단히 희생적이다. 농촌을 전도지로 정하면 전도사는 무조건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전도를 시작한다.

교리를 모르는 다른 교인이나 일반인이 볼 때는 이상할 정도로 희생적이다. 외로운 가정을 방문하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물질적, 육체적으로 무료봉사를 한다. 그리고 동리 사람들의 마음을 산후에 비로소 설교를 시작하고 많은 교인을 확보한 연후 교당을 설립하고 교인을 단합시켜 교회를 창설한다.

교회가 들어가면 그 동리는 상당히 근면해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교인들의 희생적 정신은 긴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재단은 대단히 큰 원인도 결국 따지고 보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비롯된다.

29. 삼장교회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1151-1번지에 있다. 1961년에 설립했으며, 건물 31평, 대지 151평, 신도 남 16명, 여 24명이다. 영세한 교회의 성

직을 담당한 분들은 대부분이 전도사들인데 전도사든 목사든 교인 불과 30~40 명의 교세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든 내일도 신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신앙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나, 성직자도 사람인지라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 한일인데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존경심이 간다.

30. 신기교회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1925 번지에 있으며 1955 년에 설립했다. 대지 730 평, 건물 예배당 14 평 부속건물 11 평, 신도 남 5 명, 여 10 명이다. 이 교회는 장수군에서 서북쪽 가장 먼 곳에 있다.

그런 까닭에 진안읍 가막리와 상대하고 있으며 오지 중에서 오지이다. 이곳에서 성직을 담당한 분도 적적하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외로움을 볼 수 없는 건전한 신앙생활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모범이 되어 그 성직자의 뒤에는 많은 신앙인이 생길 것이다. 참 신앙은 이런데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범 교역자들이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있고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으니 하나님을 보기 가장 좋은 곳인지도 모른다.

31. 월천교회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1925번지에 있으며, 1955 년에 설립했다. 대지 274 평, 건물 43 평, 부속건물 10 평, 신도 남 5 명, 여 10 명이다. 너무도 교세가 약해 진정 교회인가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활동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날로 늘어간다는 사회 비난에 비해 이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이다. 전 마을 10 호가 안되는 마을에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을 돌려 볼만하다.

정말 종교적 신념이 아니면 어려우며 다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는 이런 곳의 성직자들이라 하고 싶다.

32. 반석교회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308-4 번지에 있으며 연혁 1985 년에 설립했다. 대지 127 평, 건물 36평(외 부속건물) 신도 남 7 명, 여 18 명이다.

영세한 교회중의 하나이다. 교인 20명만의 교회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성직자 의·식·주 해결 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영세하여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되며 그로 인해 고생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나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 이런 교회의 성직자들이 진정한 성직자이며 물질에 현혹된 사람은 고생에서 고생으로 연장되는 생활이 하나님 복음전파 하는 성직사업이라 하여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33. 신전교회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125-1 번지에 있다.

1907년에 선교사 강옥림 목사의 선교로 시작하여 박태문, 문귀선, 김사일, 박승기, 장세갑 등 5인이 결심하여 1911년 가을 한 채를 매입하고 예배당 삼아서 박태문씨가 인도하다가 신도들이 배교하여 일시 중단되었다. 1922년에 신씨 부인의 전도로 문달석 염장례 정성여등 3인이 결심하여 장수교회에 출석하였으며 밤에 배는 문달석 집 즉 민가에서 드렸다.

1924년에 목조건물 3칸으로 예배당을 삼았으며 1938년과 1955년에 다시 개축하였다. 1965년에 다시 예배당을 증축하였는데 현재 유아원으로 사용한 집이다. 1984년 8월에 신전리 1125-1 번지 대지에다 총건평 150평을 3층으로 신축하였다. 이상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성직자 조규상 목사이다. 교회건물엔 신전유치원, 돌, 종탑 등이 있으며 대지 1125-1 번지의 총 582평인데 신전리 1128-1번지 170평, 신전유아원 40평, 사택 18평, 식당 8평, 부속건물 4평 등이 있다.

신도는 현재 186명이며 교회운영은 대단히 양호하다. 일반적으로 농촌교회와 신도들을 보면 매주에 예배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일반적 사고에 의하면 분주한 농월에 예배 생활이 어려울 듯하나 신도들은 전혀 영농생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요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전 6일 동안 열심히 하여 일요일에 못 할일을 사전에 완전히 하므로 일요일에 예배를 보아도 농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34. 계남 제일교회



계남 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이다.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69-3번지에 있다. 1985년 11월 8일에 설립하여 교도 사업은 물론 일반에 널리 전파, 마음에 갈증을 느끼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정신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권장하고 있다.

현재 이방남 목사이며 천성이 어질어 따르는 사람이 많고 교리도 잘 전파하고 있다. 교회 재산은 대지가 2백평이며 교회당

이 40평, 사택이 20평, 교육관이 20평 있어 교도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교도 수는 초등학생 1백명, 중고등부 50명, 청년 장년부가 백명이며 더 많은 신도가 따라와 크게 발전 기미도 보인다. 물질만능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보다 인간다운 정신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요청된다.

35. 내동교회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40-4번지에 있으며, 연혁 1968년에 설립했다. 대지 717평, 건물 62평, 담 600평, 신도 남 4명, 여 27명이다. 지극히 영세한 교회다. 신자의 신앙심이 아니면 감내하기 어려운 교세다. 교회의 위치는 좋은 곳이며, 발전 상황은 낮은 감을 준다. 교직자들의 고생에 동정이 간다.

36. 계북교회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589번지에 있으며, 1955년 3월 21일 설립했다. 이점천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대지 513평, 예배당 53평, 사택 17평, 신도 남 20명, 여 50명이다. 중등부 남 17명, 여 30명, 초등부 남 30명, 여 50명 등 2백명의 신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이 독실하다. 교회가 설립되고 현재와 같이 교회당이 서기까지 성직자들의 숨은 노고는 신앙이 돈독한 교



인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도 먼 훗날에도 성직자들은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교훈을 설파하는데 인색 하지 않다. 계북을 지나다 산 중턱에 의연한 자세로 서 있는 교회 건물을 보면 어지러운 세상을 인도하는 성자와 같이 보인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신만으로 살 수는 없고 물질과 정신이 혼합하여 살수 있다는 사실은 인생의 절대 조건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은 인간에 지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물질에 지배되어 가고 있다. 오늘의 사회문제, 성직자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와 교회가 하는 일은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여 정신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데 반듯이 있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37. 양악교회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악교회이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749-7 번지에 있다. 1959년 3월에 창설, 13년 후인 1972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김재수 전도사다. 교회의 대지는 200평이며 교회 건물은 27평 1동과 부속 건물이 있다. 현재의 교도 수는 아동 45명, 중고등부 35명, 장년부 26명을 합하면 105명이다. 덕유산 기슭에 자리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될 것이다.

38. 농소교회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92번지에 있다. 대지 141평, 건물 55평, 신도 남 30명, 여 50명의 영세한 교회다.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염출이 어려운 교회다. 입지적 조건은 발전할 수 있는 위치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교세에 있지 않고 성직자와 교인의 성신에 있으나 감내하기 어려운 고생이 따르는 교회이다.